

## 철과 마그네타이트에 의한 Se-75의 이동저지 영향

김승수, 민제호, 이승엽,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nsskim@kaeri.re.kr](mailto:nsskim@kaeri.re.kr)

### 1. 서론

반감기가  $1.1 \times 10^6$ 년으로 장수명 핵종인 Se-79는 심부지하에서 selenite로 존재할 경우, 이 핵종의 이동성이 클 수 있다. 당 연구실에서는 selenite가 처분용기의 부식 생성물인 마그네타이트에 잘 흡착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과량 존재하는 탄산이온, 규산이온 등이 selenite의 마그네타이트 흡착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1]. 그러나 이 실험은 비교적 지하수나 처분장에서 예상되는 셀레늄 농도보다 높은  $10^{-4} \sim 10^{-6}$  mol/L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처분용기가 지하에서 부식되어 셀레늄이 지하수에 노출된 경우, 셀레늄은 철산화물 뿐만 아니라 철과도 접할 것이다. 이 때 철과 철산화물 표면은 이미 벤토나이트나 지하수에 포함된 탄산이온 혹은 규산이온으로 포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처분장에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출된 셀레늄의 농도가 매우 낮을 것을 고려하여 Se-75를 이용하여 기존 실험보다 1~3 승수 낮은 농도에서 실험하였다. 또한, 철과 철산화물, 그리고 이들이 규산이온으로 포화된 조건에서 셀레늄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2. 실험

셀레늄의 거동에 미치는 처분용기 재질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체 매질로서 마그네타이트와 철 분말을 사용하였다. 분말 0.5 g을  $1.0 \times 10^{-7} \sim 2.0 \times 10^{-9}$  mol/L 농도를 갖는 selenite 형태의 Se-75 용액에 가한 후, NaClO<sub>4</sub>을 넣어 용액중 이온강도를 0.02 mol/L로 조절하였다. 그 후, 소량의 HClO<sub>4</sub>과 NaOH를 첨가하여 용액의 pH를 약 9로 조절한 후 7일동안 반응시켰다. 규산이온이 첨가된 용액의 경우, 반응초기 규산이온의 농도는 화강암 지하수증 농도를 고려하여 1 mM로 조절하였다. 규산이온으로 포화된 마그네타이트와 철 분

말을 얻기 위하여 이들을 각각 과량의 규산이온 용액에 3일간 반응시킨 다음 건조시켰다. 포화시킨 분말도 동일한 방법으로 흡착반응 실험에 사용하였다. 반응후 상동액을 0.2 μm의 공극크기를 갖는 polyethersulfone 필터로 거른 다음, 용액중에 녹아있는 셀레늄의 양을 γ-spectrometry로 측정하였다.

### 3. 결과 및 토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그네타이트 분말을 selenite 용액에 첨가하였을 때 대부분의 selenite가 마그네타이트에 흡착하였다. 그러나 규산이온이 용액중에 존재할 경우,  $1.0 \times 10^{-7} \sim 1.0 \times 10^{-8}$  mol/L과 같이 낮은 농도의 selenite도 마그네타이트에 거의 흡착되지 않았으며, 규산이온으로 포화시킨 마그네타이트 역시 selenite를 흡착하지 않았다. 한편, 철 분말을 첨가한 경우는 마그네타이트를 첨가한 경우보다 반응후 용액의 pH가 약간 높으므로, selenite의 흡착이 감소하여야 하나, 1 mM의 규산이온 용액에서도 철 분말이 용액중 selenite 농도를 낮추었다. 또한, 규산이온으로 포화시킨 철 역시 용액중 selenite 농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고체 표면에 selenite가 흡착하는 마그네타이트와 달리 철에 의해서 selenite가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규산이온이 이미 철 표면의 반응 site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액중 selenite 농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철 분말을 증류수에 가하였을 경우, 수소 발생은 물론 용액중 산화환원전위(Eh)가 -0.25V 이하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 4. 결론

처분용기 부식 생성물인 마그네타이트와 달리 철은 규산이온이 용액중에 과량 존재할 경우에도 용액중 selenite 농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현상은

처분공 근계에서 처분용기 파손후 마그네타이트로 산화되지 않은 철 조각이 존재할 경우, 이 철이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를 낮추어 셀레늄을 침전시킴으로서 selenite의 이동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The distribution constant ( $K_d$ ) of Se-75 onto magnetite and iron powder presaturated or non-treated with silicate.

Solid	Selenite ( $\mu\text{M}$ )	$\text{Na}_2\text{SiO}_3$ (mM)	Final pH	$K_d$ (mL/g)
Magnetite	0.1	-	8.8	480
	0.1	1.0	8.8	< 5
	0.01	1.0	8.8	< 5
Silicate-saturated Magnetite	0.1	-	9.1	< 1
	0.01		9.1	< 1
Iron	0.1	-	9.3	$> 10^4$
	0.1	1.0	9.3	$> 10^4$
	0.01	1.0	9.3	$> 10^4$
	0.002	1.0	9.3	$> 10^4$
Silicate-saturated Iron	0.1	-	9.3	2300

## 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6. 참고문헌

- [1] 김승수, 민제호, 이재광, 백민훈, 최종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2010년 추계, 211-212, 2010.